

제4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한 선도농가의 건의 및 결의문

오늘날 우리 농업·농촌의 현실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상징되며, 이런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약 4만 여개의 농촌마을이 약 절반 정도로 감소한다고 합니다.

이러한 상황은 우리 농민의 잘못도 아니요 기업가나 정부 그리고 정치가들의 잘못도 아닙니다.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영향에 의한 빈부격차의 확대에 기인한 것입니다.

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% 미만으로, 서울 식당에서는 식재료의 약 70%가 외국농산물이라고 합니다. 또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에 비해 약 70%에 지나지 않고,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도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.

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19% 정도이지만 실제로 마을 단위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60~7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작년도 농촌총각의 결혼 배우자는 약 40% 정도가 외국여성이었습니다.

이러한 사실은 바로 우리 농업·농촌이 미래가 없고 점차 황폐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또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세계무역기구 체재 아래서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우리 농업·농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.

과연 오늘날 우리 농업·농촌은 희망이 없을까요?

지난 7년 동안 우리 협회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

진해 온 도농상생과 도농신뢰구축을 위한 도농녹색교류운동이야말로 우리 농업·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6.25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붐 세대 직장인들의 약 56% 이상이 은퇴 후 농촌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

도시에서 20~30년간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신 도시민을 우리 농촌에 어떻게든 유치,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참여시켜 새로운 일거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
또한 이들이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건강하고, 보람되고,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<인생의 순환시스템>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.

농림부가 이제 식품산업까지를 담당하는 부처로 새로운 변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제 농림부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농장에서 부터 식탁까지 책임을 지는 부서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

즉 도농녹색교류를 통해 농업·농촌에 대한 접근, 이해, 사랑, 정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며,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·안심·신선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소비자들과 계약농업을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.

이와 더불어 우리 농민들의 손으로, 농가나 마을에서 명품 먹거리를 만들어 도농교류를 통한

직거래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해야만 할 것입니다.

그리고 농업·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대로 다양한 직불제를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.

이렇게 한다면 우리 농촌은 농촌주민들이 살기 좋고, 도시민들이 살고 싶은 살맛나는 농촌이 될 것입니다.

이러한 살맛나는 농촌은 이제 단순히 우리 농민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. 이제 우리 모두가 농업·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고 농민, 시민, 정부 그리고 정치가들이 모두 한마음, 한뜻이 되어 살맛나는 농촌으로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.

이에 우리 선도농가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.

첫째 : 환경 농업만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생산에 최선을 다한다.

둘째 : 우리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의

인재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살고 싶은 농촌을 가꾸도록 도시민 유치에 적극 앞장선다.

셋째 : 우리 농산물의 명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가 단위 혹은 마을 단위의 농산물가공품 개발에 적극 앞장선다.

넷째 : 우리는 도농녹색교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농업·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,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·농촌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불제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다.

다섯째 : 우리는 도시민들이 살고 싶은 농촌을 가꾸어 도시민들이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며, 도시민들과 함께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. ㉞

2007년 11월 28일

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선도농가 일동



▲ 제4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서 협회장 상을 받은 모습



▲ 제 4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서 노기욱(광주·전남연합회 사무국장) 결의문 낭독